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2년

신림동 고시촌 포교 불모지

국내 최대의 고시촌 신림동에서는 불자 찾기가 힘들다. 타종교가 고시생 복음화를 목표로 조직적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반면 교계의 포교 활동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곳 고시생 불자들은 불법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신림동 고시촌의 포교실태를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19일 오후1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약수사 대웅전. 검은테의 도수 높은 안경, 허름한 운동복 차림의 청년들이 한두명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미려한 청년들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선을 하거나 사할경례를 돌려보며 시험준비로 긴장된 마음을 풀고있다. 이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약수사 청년회(회장 최민철)가 창립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수계법회에 참석하는 불자 고시생들. 광명선원 초경스님을 계사로 봉행된 이날 수계법회에는 사법 행정 외무고시생 비롯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 18명이 5계를 받고 새 불자로 탄생했다. 다른 청년회에 비해 조촐한 수계법회였지만 수계사, 계사 모두 진지했다. 타종교의 치열한 선교 활동 속에서도 고시촌 불교화살화를 위해 고시생 스스로 신심을 다지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각종 고시 서적이 가득한 좁은 방에서 눈뜨면서 책상에 앉고 책을 보다 쓰러져 잠드는 것이 고시생들의 하루 일과다. 활동범위도 좁다. 고시원과 관련된 그리고 식당을 오가는 것이 고작이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동경으로 고시생들은 자칫하면 방황하거나 술과 환락 도박 등의 유혹에 빠져 들기 쉽다. 때문에 고시생들에겐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문화환경이 큰 활력소가 된다. 이날 수계법회를 마친 고시생 불자들은 "사찰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며 고시촌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신림9동은 5백여개의 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국내 최대의 고시촌이다. 돌아다니기 힘들만큼 좁은 고시원 골방에는 4만여명의 고시생들이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숙, 자취를 하거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고시생,

고시학원 수강생까지 합하면 6만여명이 넘는 인구가 고시촌에 몰려 있다. 고시생이 10만여명이라는 총무처의 집계 따르면 60%이상이 신림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 직장용 그만둔 직장인과 여성고시생까지 합세, 고시촌 인구는 해마다 1천명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림동 고시촌은 10여년 전부터 고시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오고 있다. 사법·행정·외무고시 등 주요 고시합격자 가운데 70% 이상이 이곳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현상은 최근 4~5년간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고시 준비생들은 '예비 사회 지도층'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종교 단체의 전도 열기는 대단하다.

그러나 불교계는 이곳은 포교의 황금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불법을 갈망하는 불자 고시생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다. 단지 고시생 불자들이

수험생 6만여명 '청운의 꿈' 키워 타종교 개종 늘어...인재불사 대책 시급 전도모임 고시원 직영등 '선교 치열'

자제적으로 법회를 보며 불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점점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 일대에는 연화정사와 약수사에 각각 2백여명의 고시생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법회 참석인원은 20~30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갈수록 회원수가 줄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림동 고시촌 포교는 '그



95년 고시생으로만 결성된 약수사 청년회는 19일 첫 수계법회를 가졌다.

림에 딱'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몇몇 고시생과 불자들이 인재불사연구원을 설립해 문서포교 등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자원이 전무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개신교 천주교 증산도 등 타종교는 고시생 이상의 치열한 '전도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꿈을 키우고 있으며 방학이면 지방에서 온 수험생들로 더욱 붐빈다. 타종교에서 직영하는 고시원은 할렙루아고시원 금강고시원 예뻐예셀고시원 등, 고시생 선교를 위한 전문 전도모임도 활발하다. 서울대 전도모임 고시생기동전도모임 예수전도단 등을 비롯 각종 선교단체들이 주안단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맨투맨 선교활동을 펼친다. 증산도의 경우는 불교청년회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불자정신을 중점적으로 교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적이다.

또 30여곳에 이르는 각 교회에서는 고시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란 점을 감안 각종 정기기도와 부흥회 등도 마련하고 있다.

매년 여름에는 이 지역 교회연합으로 '고시생을 위한 축제'를 3일간 개최하기도 한다. 이 축제에는 수험생의 '죽집게' 감사, 헌직 판·검사, 법학자 등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사를 초청해 최신 정보제공은 물론 신앙간증의 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축제에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시생들이 참여한다. 이에따라 축제가 끝나면 불자가 줄어든 정도도 선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역 불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신림동 일대 고시원 서점 학원 음식점 등의 90%이상이 특화된 타종교인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은 '선교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에따라 불자 고시생들은 이곳 저곳 옮겨다니는 가 하면 개종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타종교에서는 복지와 도서관 교회 법률센터 등을 설립해 고시생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종인 사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수록 이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종교단체가 이처럼 고시촌 선교



신림9동 고시촌에는 5백여곳의 고시원이 밀집돼 있다.

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교단의 부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교계는 인재불사를 무엇보다 강조해왔다. 이는 인재불사가 곧 호법신장을 양성하는 대표적 포교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고시촌은 인재불사의 최대 거점이다.

고시촌 포교는 전국규모의 인재양성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불사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범종단적 과제다.

하루가 다르게 타종교에 잠식되고 있는 고시촌, 교계가 고시촌 포교를 강건너 불보듯 한다면 한국불교의 내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식층 불자 밀군 현상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지 않나.

김종근 기자

이중오 변호사가 본 고시촌



"시험의 중압감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시생들은 고시병을 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에겐 불교적 정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사에서 고시공부를 했다는 이중오 변호사는 정신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고시생들에게 불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사찰의 분위기가 고시공부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예전에는 산사에서의 고시공부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정보수집을 위해 밀집 고시촌이 선호되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추이에 맞게 불교계가 고시생 절로 찾아가 포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산사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예상문제와 함께 연구하고 그 해답을 찾는 그룹스터디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고시생들은 고시원, 고시학원 서점 등 최적의 요건을 갖춘 신림동 고시촌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중오 변호사는 "고시촌에 전통적인 산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설립, 참선강좌를 비롯 각 고시원 기본강좌와 특별강좌 등을 마련한다면 학원강좌보다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고시생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뿐만 아니라 합격이후 포교사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시촌 포교는 최단기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포교의 최적지이다"는 이 변호사는 불교계가 하루속히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고시촌 포교의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 스트레스 '고시병' 불교정서가 치료약 불교 고시원등 시설 필요

고시촌에서 피우는 편지

"고시생 포교 외면 하시렵니까"

교계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에 호소합니다. 한국 사회의 지도층은 철저한 불교적 소양과 신행을 동반하는 사람들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격동기에 서구의 기독교적 교육과 물질만능사상에 전통적 가치관을 빼앗기고 출세의 수단으로 유행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의 육성, 발굴은 시대적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시생 불자는 종교적 감응과 대입의 대가를 사전에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 작업으로 고시촌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지도층으로 성장하게 될 고시촌 포교야말로 한국불교사의 획기적인 불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불자고시생의 활력은 곧바로 불교와 신도와 사회를 위한 호법신장이 되어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은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10년전 완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군포교를 한 경험 있습니다. 그 열정, 그 정성, 그 윤력이 이제 인재불사라는 더 크고 절실한 불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전의 외로운 길을 다시 걸고자 합니다. 이제 오직 인재불사, 고시생 집중포교가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길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고시공부하면서 쉬지 않고 포교했던 까닭에 모든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시 발원하여 서원을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이 큰 불사가 원만성취될 수 있도록 시방상에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고시준비불자 무명합장>



국내 최대의 고시촌인 신림동 전경.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고시생들.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醇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시판개시!

선(仙)을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선인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추드름(常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여겨 말로 다 할 수 없리라.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에 물(水)·불(火)·흙(土)·쇠(金), 네 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 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 소멸하여 지식적인 불을 생기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儀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랑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刹)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으며 토종사 소나무농장주가 이변에 힘을 합쳐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장(強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醇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 당귀·감초·표고버섯·홍살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심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낮게 하여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 종합영양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 다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후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평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96.57796호(솔효소정액)96.5587호(솔선식), 98.3.31(건강보조식품 허가) 앞으로 기적의 우리 소나무 종합영양강장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醇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허원등축서 확인가액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허원등축서 확인가액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